

임실군, 천만 관광객 유치 청신호

황금연휴 기간 옥정호 출렁다리·치즈테마파크·팻스타 연계 14만여명 관광객 방문

올해 임실방문의 해를 맞은 임실군이 이달 초 황금연휴에 주요 관광지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관광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 오수의견관광지, 성수산, 사선대 등을 중심으로 한 천만 관광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나흘간의 황금연휴 동안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관광지 이 3곳을 찾은 관광객만 1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휴 첫날과 5일 어린이날 국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치러진 오수의견제와 함께하는 임실팻스타에 8만2000여명이,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임실치즈테마파크에 3만5000여명,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2만 3천여명이 방문하며 연휴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축제에 들르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연계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맑은 날씨였던 4일에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유료 입장객만 9200여명에 달하며 단일 입장객으로는 출렁다리 개통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포함한 나흘간의 연휴 기간에만 총 2만3800여명이 방문,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12만여 명이 다녀갔다. 덩달아 옥정호에서만 임실치즈 및 유제품 매출액은 1억3천400만원, 임실엔치즈하우스 옥정호점 내에 있는 카



올해 임실방문의 해를 맞은 임실군이 이달 초 황금연휴에 주요 관광지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관광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페에서도 나흘간 1천6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옥정호 한우와 매운탕 등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도 특수를 누렸다.

군은 5월에 작약꽃과 꽃양귀비가, 6월에 수국 등이 활짝 피어, 이 계절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어린이날 축제가 열린 임실치즈테마파크도 연휴 기간 내내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황금연휴 나흘간 치즈테마파크에 3만5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어린이날인 5일 하루 동안에는 평소 주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만2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인 임실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수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팻스타에 역대 가장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아 큰 성공을 거뒀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제40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5 임실팻스타에도 역대 가장 많은 8만2000여명이 방문했다.

역대급 방문객으로 치즈 등 유제품의 경우 지난해 총 매출액(3천800만원)보다 두 배에 달하는 7천150만원어치가 팔렸고, 한우명품관 등 부스 매출도 증가했다. 특히 팻 용품 박람회에서는 축제 기간 26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심 민 군수는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임실군은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작은 농촌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명실공히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5월과 6월에 옥정호 붕어섬생태공원과 치즈테마파크 집미원 등 주요 관광지에 계절꽃이 활짝 피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임실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반할주택' 협업체계 강화

남원시, 전개공과 기본업무 협약 체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남원시는 전복개발공사와 기본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남원시가 '2025년도 전복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밝히기 위한 첫 공식 행보로, 이번엔 꾸러질 실무협의회는 남원시와 전복개발공사 실무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2025년 전복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사업 후보지 개발 방향 설정 △사업 추진 일정 협의 △입주 수요 반영 방안 △남원시-전복개발공사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남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 착공 등 단계별 일정에 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 반할 주택은 향교동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2029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남원시가 든든한 시작이자 오래 머물고 싶은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성료

남원시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7일에는 남원시위트호틀 대연회장에서 남원시어르신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역 어르신 100여 분을 초청, 최경식 시장과 각 여성단체회장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국립국악원 소속 명창 양은주 외 1명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우리 소리로 흥을 돋우었고,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은혜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을 전제했다.

8일에는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한 특별 프로그램 '5월월 말나눔'이 펼쳐지고,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농협주부



대학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 특식을 드시도록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스마트 돌봄,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여가 복지시설 확충 등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본격 영농철 맞아 벼 육묘 중점 현장 지도

임실군이 5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건전한 벼 육묘 관리를 위한 중점 현장 관리 지도에 나섰다.

벼농사의 절반은 건강한 모기르기부터 시작하는 만큼 농가별 이앙 시기를 고려한 못자리 설치 및 건전모 생산을 위한 육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카다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락병, 깨씨무늬병, 벼잎선충 등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종자소독을 철저히 한 후 30~32℃에서 3일 내외로 상차 쌓기를 하는데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차광막을 씌워 상하부 온도 차이로 인한 고온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부직포 육묘는 피복 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상자 옆에 1~1.5m 정도 간격으로 얹어 고정하고 고랑에 물을 충분히 대주어 모판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한낮에는 부직포를 열어 환기하고, 아간에는 덮어주는 등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

또한, 하우스 육묘 시에는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모판을 깔아 모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20~30%의 차광막을 씌워서 고온 피해나 백화현상을 피하도록 하는데 차광막을 씌우지 못한 경우에는 모판 위에 못자리용 부직포를 덮어줘야 하며 일교차가 클 때는 주간에 축창을 개방하여 환기하고 아간기

온이 15℃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못자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일교병(모잘록병)은 봄철 녹화 시작 후 10℃ 이하의 저온 또는 출아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일교차가 큰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출아할 때 온도는 30~32℃를 유지하고 3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녹화에는 25℃ 내외로 유지하는 등 철저한 온도 관리와 예방 위주의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하우스 육묘 중 급격한 온도 변화와 종자 밀도 및 상자 내부의 과습과 상대습도의 산소 부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종자 파종과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파종 전에 적용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요양시설서 어르신들께 감사 전하

순창군 관내 요양시설에서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순창군 관내 요양 시설에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육천요양원, 순창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 열린 가족추천행사에서 최 군수는 "한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 상영, 악기 합주 공연, 모범 임소 어르신에 대한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어 육천요양원에서는 가족 추천행



사와 품바 공연이 열렸으며, 마지막으 로 순창노인복지센터에서는 난타 공연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최 군수는 "어르신들의 삶은 지역사회와 뿌리이자 지혜의 근원"이라며 "앞으로도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따뜻한 복지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제3기 군민소통 혁신 추진단 모집

순창군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중심의 행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3기 군민소통혁신 추진단'을 모집한다.

군민소통혁신 추진단은 군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군정 주요 정책에 군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순창군 대표 소통 채널이다. 이번엔 모집되는 제3기 추진단은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활동 기간 동안 추진단은 정기 회의와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군정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모집 대상은 순창군민으로 순창군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농업·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1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군 기획예산실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춘향제에서도 고향사랑기부 홍보 나서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기부제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원시는 랜덤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나서며, 남원을 찾아 고향사랑기부로 남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분들로 이어졌다.

제21대 남원시 명예시민 박경호씨는 대구광역시에서 소재한 화원도정공장 명예사장으로, 남원 지역 쌀 유통관로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엔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정영철 영동군수는 "국악의 성지인 남원답게 다양한 국악공연과 풍성한 볼거리로 채워진 축제에 인상깊다"고 전하며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학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단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